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10, No. 1, pp.89-96, January 31, 2024.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89
JCCT 2024-1-10

대학생들의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

Effect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College Student's Grit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송민선*, 정헌식**

Minsun Song*, Hunsik Jung**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후 경험, 변화와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2022년 8월 29일부터 8주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전후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8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적 통계, t-test를 시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후 취업준비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현실적인 취업 준비와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주요어 : 대학생, 취업, 그릿, 취업준비행동, 요구

Abstract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college students' grit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d confirmed the post-program experience, change, and need for employment support. Data from a total of 39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were analyzed.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was conducted for 8 weeks starting August 29, 2022. A survey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 people afterwards.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and interview content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was implemented. Also, the employment support program helped prepare for realistic employment and set a direction, and improved confidence in employment. Therefore, expansion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nd customized employment support to improve college students' employment capabilities are necessary.

Key words : College Student, Job, Gri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Need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은 2020년 65.1%로 2019년에 비해 2.0% 감소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청년들의

*정회원,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제1저자)
**정회원, 건양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 2023년 11월 1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1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30일

Received: November 13, 2023 / Revised: November 23, 2023
Accepted: November 30, 2023
**Corresponding Author: jhs3010@konyang.ac.kr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Administration, Konyang Univ, Korea

취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1] 2020년 기업체의 채용은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활동이 자제되고 경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체의 채용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으며, 대학과 지자체는 다양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2]. 취업지원을 위해 대학은 취업지원을 위한 기구를 두고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진로 및 취업상담, 자기소개서 작성교육, 면접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과정, 취업특강, 현장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3].

대학마다 취업지원 기구는 취업지원센터, 경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설되었고, 진로와 취업교육을 이러한 기구들에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3]. 이처럼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지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관련 교육과정이 부족하고, 기업현장과의 괴리로 졸업 후 취업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4]. 학교마다 시행되는 많은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의 실효성에 대해 Nam과 Choi [3]는 기업연계, 특강, 상담의 순서로 취업지원의 유용성을 확인한 바 있다.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은 학생의 만족도, 면담, 산업변화에서 요구하는 취업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야 취업역량 강화를 이룰 수 있어[4] 기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학생들의 평가와 요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준비를 진행하는데 있어 대학생들의 노력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과 열정, 지속력을 의미하는 그릿은 대학생활의 빠른 적응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5]. 취업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취업준비행동으로 관련 분야의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행동들은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6].

많은 대학들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1회성의 단기 프로그램이 많으며,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7]. 이러한 상황으로 취업준비를 위한 학생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Song과 Jung [8]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이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전공별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Shin [2]의 연구에서처럼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요구를 확인하여 취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참여 학생들의 면담을 통한 평가 또한 Boo와 Seon [4]의 연구 외에는 없었으며, 대부분 취업지원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9,10]. 따라서 단순히 설문조사만이 아닌 대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취업준비행동을 위한 요구를 파악하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산업변화에 따른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8주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취업준비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험, 변화 및 향후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대상의 그릿과 취업지원행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 취업지원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첫째,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그릿과 취업지원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들의 면담을 통하여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 변화 및 향후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의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 소재 K대학교에서 진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47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 내 게시판을 통해 모집문건을 부착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 중 면담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80%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로 하였다[11].

본 연구의 표본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통계적 검정력(1-β) .90, 유의수준(α) .10, 효과크기 .5(중간효과크기) 수준에서 one-group의 평균차이 검정을 위한 대상자를 산출한 결과 44명의 표본수가 산출되어 탈락율을 고려하여 총 4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설문지가 미흡한 9명을 제외하고 총 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시행 1개월 이후 대상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졸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를 위한 표본수는 Kim [12]의 5~10명의 산정근거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대학교 4학년 학생 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문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얻은 주요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습니까?”,“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취업준비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의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3. 실험중재

대상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에 니즈에 부합하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취업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문제해결 프로세스 학습, Action learning에 기반 한 기업니즈 파악 및 솔루션 개발, 취업캠프로 총 8회기로 구성하였으며, 일 7시간 총 8주간의 56시간이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1).

표 1. 실험중재 프로그램
Table 1. Experimental Intervention Program

Weeks	Contents
1	Program orientation, self-understanding
2	Problem derivation process learning
3	Action learning 1st session: Identify corporate needs and identify problems
4	Action learning 2nd session: Develop solutions through feedback
5	Action learning 3rd session: Presentation of results and mentoring
6	Job camp day 1 - Experience summary, self-introduction and interview special lecture - Self-introduction writing and one-on-one consulting - Mock interview
7	Job camp day 2 - Special lecture on how to write a portfolio - Creating individual portfolios
8	Announcement of final results Incumbent final feedback Individual portfolio finalization Program completion ceremony

4.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년, 평균 평점, 전공, 취업지원 부서 이용, 취업준비기간을 확인하였다.

2) 그릿

대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1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심의 일관성 6문항, 노력의 꾸준함 6문항의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1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였다.

3)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Au 등[14]이 연구·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0문항 6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식적 직업탐색 6문항, 비공식적 직업탐색 10문항, 취업준비강도 2문항, 취업준비노력 6문항, 예비적 직업탐색 6문항, 적극적 직업탐색 1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평가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Au 등[1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5.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22년 8월 2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보조원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전 연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부하여 사전 설문지를 시행하였으며, 8주간의 프로그램 후 9주차에 사후 설문지를 시행하였다. 설문지 소요시간은 10분 정도였다.

면담은 선행연구[12]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한 4학년 학생 중 8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12일~12월 16일까지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설명서와 연구동의서를 배부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2개월의 전체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시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기록과 녹음을 시행하였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우려하여 면담은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면담 참여자를 기호화하여 익명성을 준수하였고, 연구종료 후 수집된 자료와 녹음본은 3년간 보관하며 이후 관련서류는 분쇄·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6.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 26.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그릿 및 취업준비행동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시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전후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 후 경험, 변화 및 향후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의 면담 내용을 추가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2.82±2.17세(범위 19-31세)였다. 성별은 남자 14명(35.9%), 여자 25명(64.1%)였으며, 학년은 2학년 12명(30.8%), 3학년 14명(35.9%), 4학년 13명(33.3%)이었다. 평균학점은 3.0 이상 3.5미만이 20명(51.3%) 전공은 공학계열이 27명(69.2%)으로 가장 많았다. 취업관련 부서 이용횟수는 5회 미만 22명(56.4%), 취업준비기간은 1년 미만이 18명(46.2%)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9)

Variables	n	%	Mean±SD
Age (years)			22.82±2.17
Gender			
Male	14	35.9	
Female	25	64.1	
Grade			
Sophomore	12	30.8	
Junior	14	35.9	
Senior	13	33.3	
Grade point average			
2.5~less than 3.0	3	7.7	
3.0~less than 3.5	20	51.3	
3.5~less than 4.0	13	33.3	
~above 4.0	3	7.7	
Major			
Engineering	27	69.2	
Arts & physical education	3	7.7	
Humanities & social sciences	3	7.7	
Natural sciences	6	15.4	
Use of employment support department			
No	15	38.5	
Less than 5 times	22	56.4	
5 or more times	2	6.1	
Job preparation period			
None	17	43.6	
Less than 1 year	18	46.2	
Over 1 year	4	10.2	

2.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대상자에게 시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그릿은 사전 3.32±0.43점에서 사후 3.31±0.41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취업준비행동은 사전 2.91±0.35점에서 사후 3.04±0.38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89, p=.006)(Table 3).

표 3.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의 차이
Table 3. The Difference of Grit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N=39)

Variables	Before	After	t	p
	Mean±SD	Mean±SD		
Grit	3.32±0.43	3.31±0.41	-0.14	.890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91±0.35	3.04±0.38	2.89	.006

3.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험, 변화 및 취업지원 요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얻은 주요 경험

대상자들은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면접시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면접시 주의할 점에 대해 조언을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실무자와 함께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제시하였다.

"자기소개서를 3학년 2학기부터 나름 준비하였는데, 전문가 특강 후 자기소개서를 첨삭 받으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응답자 1)

"실전처럼 진행하는 모의면접이 가장 긴장된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조언을 얻은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답자 3)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무자와 함께 실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체험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응답자 4)

2)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 후 변화

대상자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방향이 명확해졌다고 하였다. 또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진로상담 등을 하면서 진로가 명확해진 점을 주요 변화로 제시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취업 준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취업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1)

"무엇부터 해야 할지,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만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방향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응답자 5)

"취업 준비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응답자 3)

"취업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것 같아서 취업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응답자 4)

"저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함께 참여하신 실무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희망 직무가 명확해 진 것 같습니다. 희망직무를 정하고 나니 취업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응답자 6).

3)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

대상자들은 전공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으며, 현재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개별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길 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을 요구하였으며, 많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길 원하였다.

"문제해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 전공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되었지만,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전공 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차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자 2)

"모의 면접 시에 AI면접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대면면접과 AI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응답자 8)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진로에 대한 멘토링을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1)

"학생신분으로 진로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프로그램에서 더 많은 분야의 멘토분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7)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와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후 경험, 변화 및 취업지원 요구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대학생들의 그릿은 변화가 없었으나, 취업준비행동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3개월간 취업지원 프로그램 시행 후 취업준비행동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인 Lim [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반면,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열정과 인내를 의미하는 것으로[5]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향상은 없었다. Park과 Kweon [16]은 그릿 증진 프로그램 진행 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그릿이 진로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 이는 그릿이 본 연구에서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한 학생 대상이므로 이미 취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흥미가 있어 그릿의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릿은 일자리 즉 Good Job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직업가치와 취업준비행동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연구를 볼 때[17] 취업준비에 있어 그릿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모의면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면접시에 주의할 점에 대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기업의 실무자와 함께 기업의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시행한 것을 주요 경험으로 제시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된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후 현실적인 준비 계획 수립과 취업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Lim [15]의 연구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미참여학생보다 문제해결, 직업의식, 구직대응성에 대한 역량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Youn과 You [18]의 연구에서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고용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대학차원에서 제공되는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생 개개인의 진로를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진로목표를 달성하게 된다고 하였다[19]. 따라서,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향후 취업에 대한 준비계획이나 명확한 방향성 정립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취업지원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는 전공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였으며, 다양한 진로를 위한 멘토들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이는 Kim과 Oh [20]은 전공별, 취업지원 활동 경험에 대해 참여형, 기본형, 저조형의 분류별로 진로준비활동과 만족도를 확인하였을 때 차이가 있어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공학계열의 학생이 69.2%로 가장 많아 의료보건계열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다른 과에 비해 취업이 보장된다고 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에 대한 면담에서도 학교의 수업이 취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매뉴얼 개발 및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21]. 이처럼 대상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전공별, 수준별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면접의 트랜드에 맞춘 AI (Artificial Intelligenc) 면접 경험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상호작용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채용과정에 AI면접이 급증하고 있으나[22], 대학생들이 아직 이러한 채용방식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어[23]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의 AI 면접의 요구도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학교마다 면접 트랜드에 맞추어 많은 면접유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취업 기업에 따른 개별화된 면접유형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학생에게 8주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대조군을 두지 않고 단일군으로만 진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들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후 경험, 변화 및 향후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는 일부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자료로 양적연구를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대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전문가들의 실제 문제해결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과 시행 후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진행한 8주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그릿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은 그릿은 변화가 없었으나 취업준비행동은 유의하게 향

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과 취업 준비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과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공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년별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멘토링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0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graduates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results, Chungbuk: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21 [cited 2022 October 10]. Available from: https://kess.kedi.re.kr/post/6740865?itemCode=04&menuId=m_02_04_02

[2] S.O. Shin, "Satisfaction after running on the online self-introduction consulting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in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8, No. 2,. pp. 109-116, December 2020. https://doi.org/10.22961/JHCLS.2020.8.2.109

[3] J.W. Nam, Y.K. Choi,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program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1, pp. 66-75, January 2022.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1.066

[4] K.C. Boo, J.G. Seon, "A study on satisfaction analysis of university employment program",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Vol. 13, No. 1, pp. 379-401, February 2022.

[5] A.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v, D.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2, No. 6, pp. 1087-1101. June 2007.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6] Y.S. Jo, "The analysis of job preparation activities by work valu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4, pp. 1690-1698, April 2013. https://doi.org/10.5762/KAIS.2013.14.4.1690

[7] H.Y. Na, J.H. Bae, Y.R. Kim, S.H. Cho, H.S. Lee, M.H. Joo,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career exploration class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3, No. 6, pp. 2255-2270, December 2022. https://doi.org/10.22143/HSS21.13.6.155

[8] M.S. Song, H.S. Jung, "The effects of job-seeking anxiety,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on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enior undergraduates who experienced COVID-19",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10, pp. 299-308, October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10.299

[9] J.H. Kim,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long-term job candidat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1, pp. 821-832, February 2020. https://doi.org//10.22143/HSS21.11.1.60

[10] H.M. Kim, C.H. Mok, H.J. Kim, "The qualitative study of college students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employ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9, pp. 1321-1347, May 2019.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9.1321

[11] N.Y. Yang, Y.K. Yoo, M.S. Song, "Effects of leg strength exercise on muscle strength, flexibility and symptoms of urinary incontinence of elderly women."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30, No. 4, pp. 417-425, August 2018. https://doi.org/10.7475/kjan.2018.30.4.417

[12] K.B. Kim. Qualitative research. Hyunmoonsa, pp. 457, 2005.

[13] S.R. Lee, Effects of grit, deliberate practice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on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2015.

[14] Y.K. Au, D.G. Kim, Y.J. Chung, J.Y. Lee,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est for college student", The Korea Education Review, Vol.17, No.3. pp.267-291, October 2011.

[15] K.S. Lim, "The effectiveness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mployment readiness behavior, and employment pos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28, No. 3, pp. 177-193, September 2018. https://doi.org/10.21024/pnuedi.28.3.201809.177

[16] J.H. Park, H.S. Kweon, "Effect of grit promotion program to improv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Type and Human Development, Vol. 23, No. 1, pp. 97-116, May 2022. https://doi.org/10.52745/KAPT.2022.23.1.97

[17] J.H. Lee, "Effect of college students' grit and good job perception on job preparation behavior - Focused on Korean and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 11, No. 1, pp. 271-297. January 2022. https://doi.org/10.30974/kaice.2022.11.1.12

[18] J.H. Youn, Y.L. You, "The study of college employment support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8, pp. 479-504, August 2015.

[19] J.A. Lee, W.Y. Choi, "Th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variables that affect college students' career choice actio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3, No. 2, pp. 101-121, June 2010.

[20] J.E. Kim, Y.K. Oh, "Latent classes in the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of college students and testing the effects of related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Vol. 25, No. 1, pp. 1-40, March 2022.

[21] J.A. Kim, "Nursing students' thinking about employ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4, pp. 83-92, November 2017. https://doi.org/10.17703/JCCT.2017.3.4.83

[22] K.H, Bhalgat, An exploration of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impact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process, Master's thesis, Dublin Business School, Dublin, Ireland., 2019.

[23] N.M. Shin, J K. Han, "Gender differences on AI-based job interviews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ftware Assessment and Valuation, Vol. 18, No. 1, pp. 61-70, June 2022. https://doi.org/10.29056/jsav.2022.06.08